

# Message from the C.E.O

## 수평 커뮤니케이션과 “섬김의 문화”

“캐럿은 주주, 임직원, 300여명의 강사들과  
수천 명에 달하는 고객들이 매일 함께 호흡하며  
내일을 꿈꾸는 가치공동체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유교적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에게 섬김의 문화는 익숙해져 있다. 21C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가 성공적으로 만들어 지기 위한 필요조건은 과감한 커뮤니케이션이 흐를 수 있는 수평문화인데, 이것이 기능적으로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 그리고 합리적 의사소통 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평문화의 성공여부는 한마디로 “섬김의 문화”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캐럿은 전 직원이 매년 커뮤니케이션 서약서를 작성한다. 핵심 내용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비평, 불만을 하지 않고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지식조직이 산업사회 조직보다 직원들의 충성과 희생을 더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기계가 아닌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산업심리학자인 스콧(Scott)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정의했다. 첫째, 조직에 헌신하는 것. 둘째, 다른 집단 구성원에게 자기 집단을 비판하지 않는 것. 셋째, 경쟁에서 다른 집단을 앞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캐럿은 가치 공동체이다.

주주, 임직원, 300여명의 강사들과 수천 명에 달하는 고객들이 매일 함께 호흡하며 내일을 꿈꾸는 그런 곳이다. 미래지향적 가치기업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상사와 부하에 대한 존중과 신뢰,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개인의 Vision과 열정으로 승화될 때 개인의 자존감이 극대화되고 우리의 목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Written by 대표이사 노상충 (James Roh)

